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당연직 공무원 3명·민간위원 10명으로 위원회 구성 법무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영광군은 15일 오전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종만 영광군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새로 구성된 1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3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기타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됐다.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개정 사항의 적절성,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은 이날 제4차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및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건을 심의했다.

강종만 군수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군민 누구나 소외받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신규 위촉식.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은 지난 5월 15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문광선)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안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호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생태관광 활성화', '현장 관리기관 간 업무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신안군은 전역이 유네스코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3,238km²)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1,100km²에 달하는 광활한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522km²), 갯벌도립공원(162km²), 습지보호지역(1,100km²), 해양보호구역(70km²) 등 다중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이명주기자

“Korea를 사랑하는 대한외국인 무안으로 모여라”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마당에 무안 글로벌 외국인 가요제 개최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재)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전국의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무안 글로벌 외국인 가요제'를 오는 6월 10일(토) 18시에 황토갯벌랜드 주무대에 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안 글로벌 외국인 가요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용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참가자격은 음악을 사랑하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노래부터 댄스,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장르 불문하고 끼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자신 있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28일까지로 자신의 장기를 뽐낸 간단한 동영상 제작하여 이메일(gfnevent2023@g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동영상 중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8팀은 6월 10일 무안황토갯벌축제장에서 본 경연을 펼치고 1등에게 상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출연자에게 총 5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본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트로트 가수 신유, 김혜연을 비롯한 울랄라세션 등이 출연한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관 협회가 후원하는 '2023년 지역문학관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영화가 있는 문학관'을 운영한다.

'지역문학관 특성화 사업'은 한국문학관협회 후원으로 각 지역의 문학관이 주민을 대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가 있는 문학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황홀한 저녁노을 맛집을 자랑하는 목포문학관 야외 옥상에서 평일 저녁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 토크와 함께 바쁜 일상 속 여유와 힐링을 제공한다.

오는 25일 자야를 찾는 주제인 '나를 위한 영화'를 첫 상영작으로, 6월은 '여성, 그 시선을 넘어', 7월 '영화 속 여행', 9월은 목포문학박람회 연계 '스크린 속 문학', 마지막 상영인 10월 26일에는 '음악에 취한 영화'로 영화 OST와 함께 디제이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25일 첫 상영작 '태어나길 잘했어'에는 <한강에게> 강진아, <지슬> 홍상표, <죽구왕> 황미영까지!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영화에 출연한다. 상영 후, 영화를 제작한 최진영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매회 상영마다 주제별 다른 장르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케이터링(행사·연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공급)이 제공되며, 그 동안 접하기 힘든 독립예술영화와 직접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의 만남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에 관심있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목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학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목포문학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목포문학관 '2023 지역문학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영화가 있는 문학관' 운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만나는 옥상영화, 5월 25일 첫 상영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벼 병해충 생력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 처리'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함평군은 “모판 관주 처리 현장 연시회가 지난 16일 나비골농협 육묘장에서 농업인, 농업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연시회는 벼 모판 관주 처리 기술에 대한 교육과 현장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모판 관주 처리'는 이앙 1~2일 전 모판에 살충제, 작물 활성화 등을 혼용해 육묘상자에 살포하는 신기술 농법이다.

병해충 방제 횡수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생력방제 기술로 기존 농법에 비해 약제 살포 시간을 95% 가량 절감할 수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경제 현안 위해 군민과 전문가 머리 맞대

영암군이 지난 16일 군청에서 '2023년 영암군혁신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인의 혁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9개 영암 지역경제 현안이었다.

혁신위원들은 안전에 대한 영암군의 보고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보낸 다음, 토의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한 깊이를 더했다.

영암군은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현안사업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